**안녕하세요.  
저는 ㅇㅇㅇ의 엄마 (혹은 아빠) ㅇㅇㅇ 입니다.**

**겨우내 말랐던 나뭇가지에 새움이 돋고  
목련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린 걸 보면  
분명 봄은 봄인데 다시 시작된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  
마음도 힘들어지고 얼굴보기도 힘들어졌네요.**

**ㅇㅇㅇ님과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요?  
이런 편지를 ㅇㅇㅇ님께 쓴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 
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펜을 들게 되었어요.**

**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을 느끼곤 하지만  
제가 믿는 하나님은 불확실한 삶의 일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 
은혜로 채우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랍니다.**

**지금까지 제가 이웃으로서 ㅇㅇㅇ님을 보니  
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에 배울 점도 많고 존경합니다.  
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없을 만큼  
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.**

**그래서 저는 ㅇㅇㅇ님이 하나님을 믿고  
모든 생활에서 기쁘고 행복하며 하는 일마다  
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.**

**저는 이런 마음을 제 기도에 담아 늘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.  
ㅇㅇㅇ님도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.**

**보내 드리는 이 편지가 ㅇㅇㅇ님 에게  
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 
다음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반갑게 만나요.**

**마음을 담아 ㅇㅇㅇ 드림**